

지혜 VII

'흐름'을 읽고 만드는 사람

[에스겔 47:8-10]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 생수의 강 (에스겔 47장)

축복의 강이 흐르고 있다.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친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된다. 본질은 생명의 강이다. 그래서 생명의 강의 속성과 원리를 알아야 한다. 강은 흐른다. 고여있지 않다. 에스겔 47장의 생명의 강은 저장된 호수가 아니다. 성령의 속성도 이와 같다.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에 갇혀있지 않다. 공간을 초월한다. 그 초월의 개념이 바로 '흐른다' 라는 속성이다. 성령은 저장된 호수가 아니다. 성령은 흐르고 싶어한다.

[요한복음 7: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도 생수가 그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생명은 고여있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다. 생명은 흘러야 한다. 마찬가지로이다. 나에게 흐르는 생수의 강, 가정, 공동체, 그 시대에 흐르는 하나님의 강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강의 흐름에 나를 던져야 한다.

2. 흐름

흐름을 타야한다. 나의 흐름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강의 흐름을 타야한다. 흐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사탄이 흘러보내는 흐름이 있다. 하나님의 강과 역행하는 사탄의 강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해야 한다.

(1) 역행

(2) 순행

사울왕을 보라. 압살롬을 보라. 바벨탑을 보라.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라.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만들고 있는 흐름에 민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이지 않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한 미혹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지 않다. 맞는 이야기이다.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준다. 보기에다 탐스럽지 않은 열매를 누가 먹으려고 하겠는가? 저런 탐스러운 열매를 왜 못먹게 하느냐? 라는 의심이 사탄의 미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절대적 기준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영'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신뢰의 차원이며, 믿음의 차원이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사울, 압살롬, 바벨탑, 노아에 역행했던 사람들이 만든 흐름이 그 당시에는 성공하고 세를 얻는 것처럼 보였어도, 결국 그들은 심판 가운데 멸망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은 떠나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무가 심겨져 있는 토양이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나무가 중요해 보여도, 심겨진 토양이 죽어 있다면 그 나무가 죽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흐름이 아니라 정탐꾼처럼, 다윗의 용사들처럼, 노아처럼, 은총의 흐름을 선택해야 한다. 그 은총이 결국 승리한다.

3. 흐름을 방해하는 일들

(1) 저항

저항하면 어렵다. 내 마음에 있는 돌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저항을 만들며 마찰을 만든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의 뜻을 말한다. 육의 생각을 말한다. 이를 불순종이라 한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이루고 싶은 마음' 을 말한다. 돌이 제거되어야 여호와의 길이 만들어진다.

[이사야 62: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다윗의 위대함을 보라. 음행이라는 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저항을 그 마음 가운데 만들었다. 그 때부터 다윗의 마음은 거짓말과, 술수와, 살인이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만 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 하려는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했다. 더 이상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다. 회개함으로 자신안에 있는 돌을 제거한다. 그리고 다시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지 말기를 간구한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었다. 다시 흐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강이, 성령의 강이 내게 흐르도록 '순복' 해야한다. 하나님의 강은 저항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흐른다.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이다. 평강은 하나님의 강이 내 마음안에 흐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평강을 지켜야 한다. 내 마음에 저항을 만들려는 사탄의 '사고방식'을 제거하고 은총의 사고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강이 평강 가운데 흐르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2) 정체

[에스겔 47: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정체되면 어렵다. 개펄이 되지않게 하라. 하나님의 강이 흐르게 해야한다. 바다를 이룬다. 큰 축복의 강이 내 삶에서 흘러 바다가 되게 해야한다. 바다가 있는 곳까지 흐르게 해야한다. 강과 바다의 크기와 넓이를 비교할 수 없다. 강이 흐르는 곳은 바다이다. 그리고 이 바다의 축복은 강의 축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은 바다까지 이른다. 우리를 통해 축복하실 생명의 강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크게 축복해야 한다.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야 한다. 우리를 통해 일으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를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신다.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해야 한다.

[에스겔 47:9-10]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진펄과 개펄은 두려움이다. 움직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믿음은 움직일 때 나타난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 실제적 움직임이 땅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해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한 발을 옮기는 것이다.

4. 흐름을 타는 사람들 -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을 채우라.

내 힘과 능은 약해진다. 그 쇠잔함이 자연의 원리이다. 즉, 다른 힘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영역의 돌파를 경험한다. 그 마음이 겸손이며 온유함이다. 내 힘을 부인하고, 더 큰 힘 앞에 순복하는 마음이 겸손이다.

겸손이 가득 찬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내 힘을 쓰는 것을 두려워 한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보조를 맞추는 동행의 삶이다. 이 사람은 결국 마지막까지 쇠잔함이 없다. 내 힘을 빼고, 공동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강에 몸을 던져 은총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다.

(1) 모세

[신명기 34:7]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혈기를 다루신 하나님. 마음의 칼을 제하시고 온유함을 가르치신 하나님. 모세의 육의 힘을 빼고난 후에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은, 실제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2) 여호수아 갈렙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가 취했는가? 두려움에 사로 잡혔던 정탐꾼들이 아니다. 비록 내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겸손은 내 힘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이 사람이 정체되지 않는다. 내 힘의 한계를 알기에, 더 큰 힘의 축복을 받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강을 타야한다. 치유와, 회복의 강의 흐름에 내 몸을 맞겨야 한다. 타보면 쉽다. 기쁨이 있다. 생명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하라.

(3) 은혜를 입어야 한다.

압살롬의 도전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노력했다.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할 강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15:25]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If i find favor in eyes of the Lord~”

결국 이런 다윗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안에 흘러갔다. 다윗 옆에 충성된 사람이 많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원수인 압살롬에게도 은총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축복의 사람, 축복의 근원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다.

내 삶에 흐르는 축복의 강, 가정 안에 흐르는 축복의 강, 공동체에 흐르는 축복의 강 (사고방식)이 막혀 있으면 결국 축복의 강은 마른다.

사탄은 언제나 축복의 강을 마르게 하는 사고방식을 내 안에 넣으려 한다. 그 사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는 땅의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게 한다.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총을 옷 입으려 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는 일인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허락없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던지고, 자신은 축복의 자리에 언제나 선 것이다. 그래서 범죄 중에도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다.

하늘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하늘의 강의 흐름을 수 있는 통로(은총의 사고)가 되어야 한다. 은혜의 옷을 입기를 구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작은 복이라도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총을 흐르게 하라. 그 은총이 내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의 강이 될 것이다

‘은총 입은 자, 은총의 사고방식, 축복의 사고방식, 긍정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은총 입은 자가 되라.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은총 위에 은총이 임하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배가 될 것이다.

[스가랴 4: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